

‘국정농단·몰카 판사’ 강력해진 드라마 속 풍자



풍자가 이제 드라마의 몫이 됐다. 전보다 더욱 적나라하고, 강력해진 드라마 속 풍자가 재미를 더하고 있다. 27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토일

미니시리즈 ‘무법 변호사’(극본 윤현호, 연출 김진민) 6회에서 남순자(염혜란 분)는 차문숙(이혜영 분)에게 태블릿PC로 안오주(최민수 분)의 떨어진 지지율을 보고한다.

남순자는 차문숙의 최측근으로 마사지까지 직접 행한다. 향판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같은 길을 걷는 차문숙과 그런 차문숙 곁을 맴돌며 비선실세로 기세등등한 남순

권력 민낯 고발 작품들 다양하게 등장 더욱 적나라하고 강력해져 재미 더해

자. 이 조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시킨다.

최문숙은 극중 배경인 가상의 공간 기성시의 실질적인 왕이다. 겉으로 상녀의 얼굴을 하고 기성을 제멋대로 주무른다. 건달 출신인 안오주(최민수 분)를 배후에서 조정해 시장까지 같이치우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이나 윤리는 그와 별개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인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 남순자에게 딸 강연희(차정원 분)가 이길레스런처럼 작용한다는 설정도 흥미롭다. 화창시절 강연희를 과보호하는 남순자의 치맛바람 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무법 변호사”의 미덕은 단순히 설정 차용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중 배경은 가상의 공간인 기성시다. 악인 차문숙 안오주 남순자

는 기성 실세들의 모임 7인회로 확장된다. 그들은 법으로, 자본으로 부조리를 보기 좋게 포장해 이득을 챙긴다. 드라마는 주인공 봉상팔(이준기 분)-하재이(서예지 분)의 사적 복수로 출발하지만 이번에는 기록권의 추악함을 담고 있다. ‘몰카 판사 감싸기’ 등 답답한 현실도 틈틈이 반영한다.

소년만화 같은 전개를 보여주지만 왜 가법지 않은 이유다.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 미니시리즈 ‘미스 함무라비’(극본 문유석, 연출 박정환)는 ‘생활밀착형’이다. 임바른(김명수 분)은 고아의 ‘산’이 시드로 순례 행렬을, 박치오(고아라 분)는 이종섭의 ‘가족’을 사무실에 내건다.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을 토대로 드라마는 성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임바른은 운동신경 제로에 주변 여성들에게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

는다. 반면 박치오름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직접 나서 해결하는 용감한 인물이다.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니 똥 개떡같은 소리”라고 민취해 “판데 틀에게 일침하는 임바른이나 성추행 피해자의 옷차림을 타하는 한세상(성동일 분)에게 보란 듯이 니갑을 입고 나타나는 박치오름, ‘촌스러운’ 캐릭터가 주는 통쾌함이 ‘미스 함무라비’의 웃음 포인트다.

반감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SBS 월화 미니시리즈 ‘기름칠 멜로’ 5, 6회에서 체질자(박지영 분)는 자신을 성추행을 하는 세탁소 주인에게 ‘한 방’을 날린다. 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며 “미투 때문에 한국이 난리”라고 말한다. 화끈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일각에선 미투 운동을 가볍게 다뤘다고 지적한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드라마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최근 권력의 민낯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다양한 장르로 등장하고 있다”며 “물론 풍자가 곧 ‘정답’은 아니다. 제대로 된 풍자가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7살 ‘TV유치원’의 새 변화...정성호부터 텔레토비까지



KBS 대표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TV유치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봄 개편을 맞아 신규 콘텐츠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 광장에서 진행된 ‘TV유치원 개편 설명회’에서 김덕재 KBS 제작본부장은 “‘TV유치원’은 37년 된 오래된 친구 같은 프로그램이다”며 “오래됐지만 절대 낡은 프로그램은 아니다. 늘 새로운 추구하고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이리PD도 “37년째 계속되고 있는 레귤러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개편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역대 어느 개편보다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 많은 코너를 선보인다”고 기대를 전했다. ‘TV유치원’은 지난 1982년 9월 첫 방송돼 KBS를 대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개편을 맞은 ‘TV유치원’은 유튜브 인기 스타인 헤이지니와 ‘TV유치원’의 메인 캐릭터 ‘뽀야’가 함께 직접 체험에 나서는 ‘직업탐험, 바

쁘다 바빠’를 비롯해 5개의 새로운 코너를 선보인다.

‘직업탐험, 바쁘다 바빠’는 가상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아닌 실제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직업 현장을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PD는 “이전 개편과 차이점은 현실성이다”라며 “직업탐험, 바쁘다 바빠’의 경우 직업 탐험을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아니라, 소방관을 체험하기 위해 소방서에 직접 갔다. 실제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그맨 정성호가 아바로 등장해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코너 ‘빠빠라 책이랑’도 ‘TV유치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다.

김PD는 “요즘 늘어나는 육아 아바 트렌드에 맞춰서 현실은 피곤하지만, 책을 잘 읽어주는 아바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네 아이의 아빠인 정성호는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한다”며 “어린이집에 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웃는 포인트보다 선생님들이 웃는 포인트가 더

많더라. 차라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동화라면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88년 한국 첫 방영 당시 17%의 높은 시청률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꼬꼬마 텔레토비’도 20년 만에 돌아온다.

김PD는 “보라돌이, 뽀빠, 나나, 뽀 등 기존 캐릭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새로운 색깔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토비 자체가 원래 제작 때부터 유아의 생활 습관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의 아이들도 무리 없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꼬꼬마 텔레토비’에는 20년 전 목소리로 활약한 강수진을 비롯해 유명 성우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PD는 “강수진 씨를 비롯해 김래환, 배지훈 씨 등 유명한 성우 분들이 연기를 펼치는 것도 어린이들을 사로잡을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고 전했다.

이밖에 애니메이션 ‘정글 비트 명키와 트럼프’, 헤이지니와 키크강이의 댄스 타임 ‘TV유치원 체조’ 등도 새롭게 마련된 코너다.

김PD는 “체조 코너도 아심 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브랜드”며 “기존에 ‘짹짹’으로 기억했던 ‘TV유치원’ 체조 말고 새롭게 노래를 만들었다. 친구랑 싸웠을 때나 중간 소음 문제 등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풀어낸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TV유치원’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방송된다.

“올해 韓개봉작 중 최단” ‘독전’, 흥행 가능했던 이유



범죄 액션 영화 ‘독전’(이혜영 감독, 용필름 제작)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가장 빠른 100만 돌파 기록을 세우며 흥행 질주 중이다. 각종 헐리웃에서도 흥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봉한 ‘독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109만4409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제쳤고 동시에 누적 관객수는 179만4782명을 돌파했다. 개봉 5일 만인 지난 28일 100만 돌파에 성공한 ‘독전’은 앞서 개봉한 ‘조선명탐정: 흡혈괴미의 비밀’(김석운 감독), ‘곤지암’(정병식 감독)과 함께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최단 100만 돌파라는 기록을 거두게 됐다.

중국 두기봉 감독의 ‘미약진쟁’을 원작으로 한 ‘독전’은 여러 장르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해온 이혜영 감독과 ‘친절한 금자씨’(06, 박찬욱 감독) ‘박쥐’(09, 박찬욱 감독) ‘아가씨’(16, 박찬욱 감독) 등을 통해 남다른 스토리텔링 능력을 선보여온 정서경 작가의 협업으로 완성된 각본으로 제작 단계부터 입소문

이 난 작품이다. 여기에 하나의 타격을 쫓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빈틈없는 연출을 펼치는 명배우들의 조합을 선보인 ‘독전’은 조진웅을 주축으로 류준열, 김성령, 박해준, 차승원, 고 김주혁까지 그야말로 총무로에서 본 적 없는 독한 연기의 끝을 펼쳐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감을 안긴다. 또한 강렬한 액션과 감각적인 미장센이 더해진 ‘독전’은 여타 다른 범죄극과는 차별화된 매력과 ‘비주얼버스터’다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무엇보다 ‘독전’은 각종 헐리웃을 극복하고 극장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수기로 통하는 봄 극장가, 파격적인 섀쉬, 헐리웃 블록버스터와 경쟁 등 흥행하기엔 척박한 상황에 환경임에도 배우들의 열연, 짜임새 있는 구

성의 힘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흥행에 성공한 것.

특히 ‘독전’은 미약조작을 추적하는 스토리 때문에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미약 소재가 반복돼 나오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미약 흡입, 자극적인 살인 장면 등이 담겨 있지만 이런 파격적인 수위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등급을 받아 다양한 관객을 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조진웅과 류준열을 비롯해 고(故) 김주혁, 진서경, 차승원, 김성령, 박해준 등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배우들의 ‘인생 연기’ 또한 흥행을 이끄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실제로 ‘독전’을 관람한 관객들은 김주혁과 입으로 대해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낸 ‘독전’의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N차 관람을 이끌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5월 극장가는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안소니 루소·조 루소 감독) ‘네드폴 2’(데이빗 레이치 감독)가 연달아 등극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이런 신드롬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한 것. 할리우드, 마블 스튜디오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독전’의 등장은 관객의 구미를 당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셈. 지루했던 타이밍에 ‘독전’은 새로운 장르에 대한 관객의 니즈(Needs)를 채워주면서 입소문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현재 올해 개봉작 중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은 ‘그것이 내 세상’(최성현 감독)의 기록(누적 341만 7640명)으로, 탄력받은 ‘독전’이 올해 상반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음력 4월 15일)



▶**경계** 1, 2, 7월생 중 직을 옮기려는 자는 좀 더 늦게 이뤄지겠다. 지금은 마음이 문제다. 가장 불만을 떨쳐버릴 수 없구나. 북, 서쪽에서 귀인이 기다리는 격. 사, 오, 토 성씨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좋을 듯.



▶**희희** 그, 바, 오 성씨 자기 능력만으로는 힘겨울 수. 금전운은 다가오고 있으나 인과관계에서 그 복을 믿쳐내야. 7, 9, 11월생 투기성은 버리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봐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애정에서 안정을 찾아야 사업도 잘 할 수 있다.



▶**희희** 2, 7, 9월생 타인과 손잡고 하던 것은 별 재미를 보지 못 하니 신경 쓰지 말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나 용기가 부족하다. 그, 토, 증 성씨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 금전운이 언제나 따라나 신병 아니면 애정은 좋지 않다.



▶**희희** 2, 7, 12월생 자신이 한 말이 메아리로 되돌아오니 주의하라.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살아왔다면 이제 정리할 때다. 오전의 가식적인 행동은 오후에 들뜬다. 조심해서 운전하고, 음식물 신경을 써야 건강에 지장이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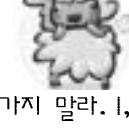
▶**용용** 자기 힘으로도 가능하나 주위 사람 도움을 받겠다. 그, 바, 증 성씨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좀 지연할 수 있으나 상대 마음을 노크하는 것이 좋을 듯. 7, 8, 9월생 노란색을 삼가고 검은색과 흰색을 함께 사용해야 좋다.



▶**잠잠** 소, 토끼, 원숭이미 조연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오, 토, 증 성씨는 금전 문제로 가족, 친지와 갈등할 수 있으나 원망 소리 커지기 전에 문제점을 찾으라. 4, 7, 9월생 속상하다 해서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말 것. 양보와 이해심으로 틈을 메우라.



▶**말말** 그, 토, 증 성씨는 상대 말을 듣고 그에게 말기라. 사랑싸움은 본인 탓으로 알고, 협력하며 근신해야 한다. 3, 4, 8월생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할 것. 여자는 남자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한다. 파란색이 좋다.



▶**양양** 지금은 인내만이 약이다.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 누구보다 자기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9, 11월생 반만 믿으라. 지출이 많지만, 수입도 많다. 먼 곳으로 가지 말라. 1, 6, 10월생은 행운이 서서히 찾아올 수. 동, 남쪽이 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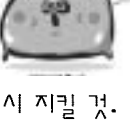
▶**용용** 3, 5, 7월생 감정을 내내우기보다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 보를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 오, 토 성씨 생각으로는 천하를 한 손에 쥘 것 같으나 뜻대로 안 된다. 인과관계로 새 터전에 도전하는 것은 어쩔지.



▶**계계** 그, 바, 토 성씨 홀로 아무리 잡으려 해도 상대방 마음에 따라 갈등하는 시기다. 육체도, 마음도 병들고 있으니 지혜를 얻어 전진하라. 시적이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 4, 10, 12월생은 소, 양, 닭이 도움을 받으면 대성한다.



▶**개개** 2, 5, 6월생 힘든 일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바, 오, 토 성씨에게 도움을 받으라. 친구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곤경에 빠진다. 진실한 마음을 보이라. 그, 토, 증 성씨를 믿는 것은 좋으나 의지하는 것은 안 좋다. 서쪽에서 행운을 잡으라.



▶**돼돼** 그, 토, 증 성씨 혼자 하려 하니 엄두도 못 내고, 타인과 함께하자니 불미스러운 조건이 붙는 격이다. 3, 4, 10월생은 구상한 것을 동업하면 길하다.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남쪽에서 귀인 도움을 받겠다. 뽀빠와 오후 데이트 약속을 받든 시 지킬 것.